## 제이콥 리스모그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가 브렉시트를 두고 3시간 동안 이어진 심야 토론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었다. 건너편에서 동료 의원들은 "똑바로 앉으세요!"라고 소리쳤다.

## 하지만 리스모그는 멈추지 않았다.

## 리스모그가 보여준 행동은 몇몇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. 배우 휴 로리는 이 행동을 "버릇없고 참을 수 없는" 행동이라고 묘사했다.

## 조기 총선 발의 거부... 보리스 존슨이 또 패배했다

## 브렉시트 관련 표결에서 보리스 존슨이 졌다

## '저는 선거를 바라지 않아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죠'

## 그러나 브렉시트 위기가 온전히 해결되기를 전 국민이 기다리는 와중에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원이 긴 토론과 여러 정치 의례로 얼마나 침체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.

## 이런 맥락에서 의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리스모그 사건을 보고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.

## 의회를 불신해온 사람들은 현재 정부의 브렉시트 접근 방식이 민주적 절차를 거의 존중하지 않고 "고위 엘리트"에 의해 쉽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다.

## 리스모그의 자세를 두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.

##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했다.